

《太平廣記》속의 허구적 新羅*

- ‘劉成神’을 중심으로 -

姜宗妊**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新羅의 허상, 그리고 대중성 |
| II. 新羅로 간 여우 劉成 | V. 나오는 말 |
| III. 劉成이 보여주는 華夷의 세계 | |

I. 들어가는 말

宋代 《태평광기》에는 신라 관련 이야기들 속에는 신라에 대한 唐代 사람들의 인식이 배어 있다. 민간에 유전되어오던 이야기들을 통해 唐人들이 신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분석의 잣대가 대중성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여느 역사적, 정치적 정론과는 구별된다.

《태평광기》에 수록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은 대중들의 街談巷說이다. 이런 의미에서 《태평광기》는 대중들의 문화적 취향과 심리를 대변하는 것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¹⁾ 마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6932).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部 講師

1) 《태평광기》에 실린 신라 관련 조목의 출전은 《西陽雜俎》·《獨異記》·《國史補》·《紀聞》·《抒情集》·《廣異記》 등 대부분 당대에 편찬된 서적들로서 그 속에서 구성된 신라에 대한 인식은 곧 唐人의 인식이라 해도 무

찬가지로 《태평광기》에 드러나는 신라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唐人들은 그것들을 통해 신라를 인식했을 것이며, 그 속에는 그들의 문화가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는 사실을 넘어서서 의미를 만들어 소통하는 실천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문화라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드는지, 대상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대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의 문제라는 것이다.²⁾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태평광기》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 상관없이 그대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신라를 인식하고 소통하는 唐人들만의 틀이 되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대는 중국의 여러 왕조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했던 왕조이다. 唐人들은 대단히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으며, 외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당 왕조는 농경세계와 유목세계를 아우른 ‘華夷一家’, ‘華夷不殊’의 대일통을 이루었고 당의 국력 팽창과 문화적 우월성은 ‘세계제국’이라고 부르기엔 손색이 없었다.³⁾ 당나라가 大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 순수하지 않음 때문이다.⁴⁾

한편 신라는 세계사에서도 드물게 손꼽히는 천 년이라는 장시간 동안 명맥을 이어온 왕조이고, 근래에는 한국인의 뿌리가 신라이며 한국사의 정통성도 신라에 있다⁵⁾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근간이다. 더구나 지리적으로 대륙과의 교역 조건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서역 등과의 교류에 있어서 삼국 가운데 가장 개방적이고 진취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서역에서 신라 무역항에 이르는 해양 실크로드를 추적해 신라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

방하다.

- 2) 존 스토리 지음, 유영민 옮김,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태학사, 2011, 6쪽 참조.
- 3) 안병우 외 지음, 《중국의 변강인식과 갈등》,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110쪽.
- 4) 위치우위 지음, 심규호·유소영 옮김, 《위치우위의 중화를 찾아서》, 미래 M&B, 2010, 302쪽.
- 5) 이종욱, 《민족인가, 국가인가?》, 소나무, 2006, 29-35쪽 참조.

추였었음을 보여주었던 TV 교양 프로그램도⁶⁾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당나라와 신라는 주지하듯이 긴밀하고 다양한 교류를 해왔고, 그 교류 양상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중국에서의 신라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세하며, 수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만큼 접근 시각도 비교적 다양하고 전면적이다.⁷⁾

한국에서의 연구로는 강필임의 <唐 文人의 新羅에 대한 認識 樣相 小考>(《中國文學研究》, 2009)나 김병곤의 <中國 正史 新羅傳에 記錄된 新羅 初期 王系 및 主要 集團의 出自>(《史學研究》, 2008) 등 다수의 논저를 들 수 있다. 특히 《태평광기》와 관련된 신라에 대한 선행 연구는 卷481의 <新羅> 조목에 관한 것이 대표적인데, 그 속에 등장하는 長人 族 속의 근원을 주로 탐색하는 것⁸⁾이었다. 또 같은 조목에 수록된 ‘방이(旁旻)설화’에 관한 연구는 국문학 분야에서 주로 설화학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 대부분이다.⁹⁾ 이처럼 중국과 관련된 신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분야에 속하는 주제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

-
- 6) <천년의 비밀, 신라 무역향의 수수께끼>, KBS1TV 《역사스페셜》, 2012.2.2. 방영.
- 7) 중국학술정보원(CNKI)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측에서 수행한 신라에 대한 연구는 일단 수량 면에서 월등히 많다. 박사 학위 논문만 약 900여 편, 학술지 기재 논문이 약 만 여 편으로 중국에서 오히려 신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적다민족국가의 지향이라는 국가적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 邊疆지역의 역사 연구 열풍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수량이 많은 만큼 논문의 분야나 접근 시각도 다양한 양상을 보여 자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비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듯하다. 상대적으로 우리 측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가 촉구된다. 중국 측의 많은 수의 논문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어 여기서는 참고문헌에 본 연구와 관련된 몇 개의 논문을 부기하기로 하고 연구 실행 단계에서 좀 더 자세한 분석과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 8) 이미자, <《新唐書》 新羅傳·《太平廣記》 新羅條의 “長人國”기사에 관한 고찰>, 《백산학보》 제65집, 2003.
- 9) 고희가, <한·중 ‘방이’설화 비교 연구>, 《한·중 민간설화 비교연구》, 보고사, 2006; 손병태, <《酉陽雜俎》의 형성과 수용 양상>, 《한국어문학연구》, 2003.

지만, 정작 고대 중국의 대중들이 신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여기에서는 《태평광기》의 신라 관련 記事들 가운데 한 조목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중국인의 세계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태평광기》 卷 449의 <泮陽令>에는 여우가 변신한 유성이라는 인물이 결국 도사에게 잡혀 부적과 함께 멀리 동쪽 끝이라고 묘사된 신라로 보내진다. 또 그 여우가 신라에서 유성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묘사되었다. 이 이야기 속의 신라는 바로 이처럼 요괴를 처리하면서 중국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으로 설정이 된 것이다.

고대 중국인에게 중국을 제외한 타민족, 즉 그들이 일컫는 四夷는 중화를 보호하기 위한 담장으로 간주되었다. 그러한 기본적인 도식은 바로 그들이 세계를 구획 짓는 기준, 즉 화이론의 토대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검색해보면 중국에서 건너 온 유성신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태평광기》의 이 이야기는 어떠한 문헌적 자료도 없는 완전히 중국인들의 상상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 존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유성신이 허구의 산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즉 중국인들이 세계를 구획 짓던 화이의 관념은 실제 역사와 상관없이 그들의 관념 속에서 존재하였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재현되었다는 점이다.

신라 역시 동이족의 일원으로서 중국인들에 의해 夷狄으로 구분되곤 했지만 그것이 과연 누구의 세계관이고 역사이며, 과연 실제로 그러했는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실제로 김씨 왕족이 권력의 중심에 서자 그 뿌리에 대한 자각으로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기보다는 초원의 길을 통해서 서역, 더 나아가 로마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힘썼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듯이¹⁰⁾ 신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중국

10) 정형진, 《실크로드를 달려온 신라 왕족》, 일빛, 2010, 66-68쪽 참조.

과 대등한 지위의 문화적 경쟁국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의 대중들이 즐겼던 서사들 속에는 몇 천 년을 뿌리 깊게 내려오는 중국인의 자기 중심적 의식이 여전히 녹아있음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과 서사 속의 허구가 괴리되어 있음을 고찰하기 위해 여기서는 여우 유성의 발자취와 아울러 여러 역사적 기록과 서사물을 통해 신라에 대한 唐人의 인식을 고찰할 것이다. 한·중 간 역사인식의 충돌이 현재화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신라에 대한 인식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의도는 時宜적 의의를 지닌 것이기도 하다.

II. 新羅로 간 여우 劉成

《태평광기》 卷449 <견양령>에는 涇陽 현령의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 현령은 天狐의 짓으로 인해 어느 날부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 그는 도사 羅公遠에 의해 제 정신을 차리고 몇 년 뒤에 관직에서 떠나 집에 머물게 된다. 어느 날 유성이라는 이름의 귀인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16세 된 현령의 딸과의 혼인을 예전에 허락받았으며 그 약속을 지키러 왔다는 것이었다. 현령이 허락을 한 적이 없다 하자 유성은 온갖 기인한 술수를 부려 집을 망가뜨렸고, 현령은 그의 뜻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현령의 아들이 도사의 도움을 얻어 유성의 실체를 알게 되고, 유성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틈을 타서 도사로 하여금 결국 늙은 여우로 변한 유성을 사로잡게 한다. 현종에게 사실을 말한 도사는 天狐를 죽일 수 없으니 동쪽 끝으로 보내야 한다고 제의하였고, 결국 부적을 붙인 채 여우는 신라로 보내진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고전 소설에 흔히 보이는 요괴담의 일종으로 사람으로 변신한 여우의 이야기는 이전부터 자주 쓰였다. 특히 당대에는 여우 요괴의 이야기가 극성하였다. 紀昀의 《閱微草堂筆記》 卷10에 “張鷟은 《朝野僉載》에서 ‘당대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우신을 섬겼다. 그 당

시 ‘여우 요괴가 없으면 마을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말이 떠돌아다닐 정도였다. 이러한 일이 당대에 이르러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태평광기》에 실린 여우 이야기는 열두 권에 달하는데, 당대의 것이 9할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¹¹⁾는 기록이 있다. 실제로 《태평광기》 권목이 龍(卷418~卷425), 虎(卷426~卷433), 畜獸(卷434~卷446), 여우(卷447~卷455), 猨(卷456~卷459), 禽鳥(卷460~卷463)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우를 주된 소재로 한 중국인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검국 교수는 당대의 소설 가운데 여우 요괴가 인간 세상에 해를 끼치거나 말썽을 일으키고, 도사가 그것을 제압하는 유형의 이야기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여우가 인간 세상에 들어와 미혼 남녀를 미혹하는 유형, 다른 사람의 처첩을 범하는 유형, 아름다운 여자들을 훔쳐 잡아가는 유형, 수컷 여우가 찾아와 스스로를 사윗감으로 추천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견양령>의 이야기 역시 스스로 혼인을 하겠다고 한 유성의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마지막 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태평광기》에는 <견양령>과 같은 유형으로 <楊伯成>·<韋明府>·<楊氏女> 등의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들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우들의 행위는 비록 인간 세상에 들어와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지만 악의가 담겨져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인간에 대한 호감이나 친근함이 보인다. 단지 인간을 미혹시킨다는 것은 여우가 색을 좋아하는 그의 본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물론 수많은 중국 고대 소설 속에서 여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민을 느끼게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며 심지어 윤리적으로 인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는 중국의 고금을 통해 금

11) 張鷟 《朝野僉載》稱唐初以來，百姓多事狐神。當時諺曰：‘無狐魅，不成村’。是至唐代乃最多。《太平廣記》載狐事十二卷，唐代居十之九，是可以證也。（紀昀著，西崖校譯，《閱微草堂筆記注譯》(二)，中國華僑出版社，1994. 503쪽.)

12) 李劍國，《中國狐文化》，人民文學出版社，2002, 78-95쪽 참조.

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존재로 각인되었다. 초기에 여우의 각색은 토템, 상서로운 짐승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요망한 동물, 요괴로 여겨졌으며, 狐神, 狐仙의 형상이 있었을지언정 그것이 신선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요괴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요괴를 거론하더라도 기타 요괴군들 가운데 여우가 단연코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대 중국에서 여우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우의 실제적인 습성과도 연관이 있다. 예컨대 밤에 활동하길 좋아하고, 의심이 많으며, 기지가 넘치고, 죽을 때는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 靈性도 지니고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여러면에서도 음험한 습성도 지닌 표리가 부동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였다¹³⁾.

무엇보다 여우가 사람을 속인다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형화되어 있다. 이는 여우의 식생활 때문이다. 여우는 자기가 잡은 동물의 고기를 일단 땅 속에 묻어 뒀다가 파내서 먹는 습성이 있다. 땅 속에 묻혀 있던 사체에서는 인 성분이 타면서 도깨비불이 발산된다. 이 불을 보고 여우들이 모여든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런 점 때문에 요괴라거나 사람을 속이는 요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퍼졌던 것이다.¹⁴⁾ 도깨비불을 보고 모여드는 여우들의 모습이 얼마나 섬뜩하고 음산하게 느껴졌을지, 그러한 모습이 불러 일으켰을 온갖 기괴한 상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고대 필기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여우는 후기로 갈수록 인간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캐릭터로 형상화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우라는 존재가 인간 사회에서 지니는 문화적 상징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고혹적인 동시에 위협하고 두려운 존재인 것도 분명하다.

<견양령>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유성 역시 여우에 대한 일반적인 心象이 고스란히 형상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령의 딸과 혼인을 하겠다고 나타난 유성은 거절을 당하자 법술을 부려 현령에게 위협을 가한다. 여

13) 李劍國, 앞의 책, 10-15쪽 참조.

14) 디지털고령문화대전, <http://goryeong.grandculture.net> 참조.

우는 현령의 마지못한 승낙을 받아 혼인을 하게 되자 굉장히 많은 예물과 재산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산다. 여우와 인간이 별 탈 없이 공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늙은 여우의 목적은 그저 젊은 인간 여자와 혼인하여 더불어 사는 것 외에 다른 악의적인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과 다른 종족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다. 도사 나공원과의 싸움에서 지게 된 유성은 결국 스스로 힘이 바닥났다고 말하며 늙은 여우로 변한다.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실체를 드러낸 늙은 여우는 어떻게 될까?

나공원이 현종에게 아뢰었다.

“이것은 天狐로서 죽일 수 없사오니 멀리 동쪽 끝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그리고는 부적을 써서 신라로 보내자 여우는 부적을 가지고 날아갔다. 지금도 신라에는 유성신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를 경건히 모신다.¹⁵⁾

여기에서 묘사된 ‘天狐’라는 것은 아마도 하늘에서 내려온 여우 내지는 하늘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여우임을 의미한다.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天’이 무한한 숭배의 대상이었던 고대 중국에서 여우에 ‘天’이라는 글자를 하나 붙임으로써 그것이 마음대로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존재임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도사는 현종에게 처치 곤란한 요물을 동쪽으로 보내자고 건의한다. 게다가 부적을 써서 여우를 신라로 보낸다. 부적이 지니는 주술적 힘으로 여우가 가져올 재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다. 그렇게 멀리 보내진 여우는 신라에서 神으로 격상된다. 중국에서는 그가 일으킨 물의로 인해 쫓겨 난 여우가 신라에 가서 신으로 모셔지고 신라인들의 경건한 숭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샅된 범술을 부리던 여우 요괴가 신라로 쫓겨 가서 신격화되었다

15) 公遠上白云: “此是天狐, 不可得殺, 宜流之東裔耳.” 書符流于新羅, 狐持符飛去. 今新羅有劉成神, 土人敬事之. 《太平廣記》卷449 <淵陽令>, 任昉等編, 《太平廣記》, 中華書局, 1994, 3670쪽.

는 이야기의 결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죽이자니 하늘의 별이 두렵고, 살려 두자니 꺼림직 한 유성이라는 이름의 여우 요괴를 처분하기에 신라는 더할 수 없이 적합한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 속의 四方과 四夷 가운데 유독 동쪽 끝을 언급한 것은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세계의 가장 동쪽 끝에 신라가 있음을 의식한 것이 아닐까? 신라와 당나라의 거리는 배로 1500리, 다시 걸어서 장안까지 3000리를 걸어야 하는 무려 3개월이나 걸리는 먼 길이다. 게다가 도중에 풍랑이라도 만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¹⁶⁾ 바다를 사이에 둔 양국 간의 실제 지리적인 거리보다도 중국인이 신라에 대해 가졌을 심리적인 거리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하고 멀었을 것이다. 따라서 처치 곤란한 요괴를 돌아오지 못하도록 부적까지 써 붙여서 쫓아 버리기에는 신라만큼 적합한 공간도 드물었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에서 어떠한 존재 이유도 갖지 못하는 몹쓸 요괴가 신라에선 신으로 떠받들어 진다니 그들의 異族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비록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 신라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묘사되지 않았지만 그 짙막한 결말에는 신라가 문화적으로 중국보다 열등한 곳이라는 보편적 심리와 인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劉成이 보여주는 華夷의 세계

물론 고대 사회에서 흔히 문화의 전파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전이 과정을 갖는다. 유성이 신라로 쫓겨 가 신으로 추앙받았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의 유형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신라의 왕자 天日倉은 일본 제11대 스이닌 천황 때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곰신(熊神)을 神主로 모신 제단인 곰신단과 붉은 옥 등을 스이닌 천황에게 전해줬다는 홍윤기 교수의 주장 역시 그러하다. 그에 따르면 천일창 왕자가 원시 채집 생

16) 원작 KBS역사스페셜, 《역사스페셜》 5, 효형출판, 2006, 151-152쪽 참조.

활을 하던 일본 선주민들에게 선진 벼농사 문화, 철제 제작 기술과 함께 곰 신단을 통해 단군 천신 신앙의 문화를 전파했으며, 곰 신단은 일본 神道の 시초가 됐다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주장 뿐 아니라 장보고가 일본에서 신라신으로 숭배되었다거나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의 왕이 되어 통치하였다는 전설을 비롯해 문화적 교류를 담고 있는 그 밖의 여러 설화와 전설도 독특하거나 상대적으로 뛰어난 하나의 인물이나 문화가 타지역으로 전래되는 과정을 담아내곤 한다. 하지만 <견양령>에서처럼 죽일 수는 없고, 그냥 두기는 난처한 애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오히려 타지역으로 건너가서 신격화되었다는 구성의 이야기는 그다지 흔치 않은 것 같다.

《册府元龜·外臣部》에 보이는 다음의 구절은 고대 중국인들의 전형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며, <견양령>에서 여우 유성이 신라로 보내진 설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하늘이 四夷를 만들어 낸 것은 도깨비를 가로막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전대의 성왕들은 고삐를 잡고 풀듯, 금수를 기르듯 (사이와의 관계를) 잘 유지했다. 이는 중국을 보호하는 담장으로 삼았던 것이다.¹⁸⁾

그들의 세계 속에서 夷狄은 중국과 도깨비의 사이에서 중국을 위한 보호벽 역할을 하는 非人非鬼와 같은 존재였다. 다시 말하면 夷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華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¹⁹⁾ 여기에서 말하는 도깨비니, 금수이니, 담장이니 하는 것들은 중국인들의 관념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자 그들의 고대 세계를 구성하는 세계관이었음이 분명하다.

고대 중국에서 말하는 夷狄은 현대적 개념에서 본다면 중화라고 불리던 자신들에 대해 지역적, 문화적으로 다른 異族을 지칭하는 상대적 개념이었

17) 홍윤기, <한일 고대사의 올바른 인식과 중요성>, 《仙道文化》 제10권, 2011, 210-214쪽 참조.

18) 天生四夷, 以禦魑魅, 故前代聖王羈縻, 勿絕禽獸而畜之. 蓋以爲中國之屏蔽也. [宋] 王欽若 等編, 《册府元龜》 卷977 <外臣部>, 中華書局, 1989, 3889쪽.

19) 이장우 외 지음, 《중국, 한국과 세계》, 영남대학교출판부, 2003, 43쪽.

다. 그 개념은 殷代 갑골문에서 이미 그 흔적이 보인다. 은대의 갑골문에는 수시로 무력침입을 하고 약탈을 자행하였던 주변의 이족에 대하여 夷, 戎 등 폼하와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는 이름이 등장하며 이는 주대의 자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夷, 蠻, 狄, 四夷, 四裔 등과 같이 주변 민족을 폼하하고 멸시하는 용어가 주대의 자료에도 종종 등장한다.²⁰⁾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는 方內와 方外, 혹은 封畿之內와 四荒之外, 또는 封疆之內와 夷狄殊俗之國으로 이분화 되었다. 황제가 다스리는 당위의 세계는 천하의 세계였지만 실질적 세계는 중국에 국한(統天下, 理中國²¹⁾)되었다. 유일한 권력인 황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적에 대한 지배가 불가능해지자 현실의 대응논리가 필요해졌다. 이 때 등장한 것이 중국 황제의 덕에 의해 이적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왕화사상이다. 이적의 정치적 독립성과 문화적 독자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적 우월감에 의한 덕치와 왕화가 강조되었던 것이다.²²⁾

중국인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중화주의, 중화사상의 근간에는 바로 이러한 화이의 구분이 존재한다. 화이사상은 중국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주변 종족에 대한 중국인의 차별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 입장에서부터 주변과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異族에 대한 폼하와 멸시는 고대사를 통틀어, 심지어는 현재까지도 뿌리 깊게 박혀있는 중국인들의 고질적인 민족성이기도 하다. 그러한 관념은 그들이 이족들을 묘사하던 극단적인 어휘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禮記·王制》편에는 사방의 오랑캐들이 천성적으로 중국의 인성과 다르다고 여겼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이런 인성이 풍속에 영향을 미치고 풍속은 다시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는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20) 이춘식, 《중화사상의 이해》, 신서원, 2002, 284-285쪽 참조.

21) 《漢書》 卷43 <陸賈傳>.

22) 홍승현, <고대 중국 화이관의 성립과 성격>, 《중국사연구》 제57집, 2008, 192-193쪽 참조.

여겼다. 또한 문신을 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머리를 길게 내려뜨리고 짐승 가죽을 쓰며 혹은 익힌 음식을 먹지 않거나 오곡을 먹지 않는다고 묘사하고 있다.²³⁾

그러나 향간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夷狄을 보는 중국인들의 관념은 단지 풍속이 다른 종족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결국 문명과는 거리가 멀고 야만스럽다고 여겨 이적에 대해 폄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렇게 타고난 본성을 바꿀 수 없다고 단정 지음으로서 인종적으로 강한 모멸감을 드러내고 있음 또한 볼 수 있다.

이적에 대한 관념은 춘추 전국시기에 이미 그 틀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적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시선 변화는 《춘추》에서 두 가지 흐름으로 표현된다. 하나는 이적을 금수와 같이 보아 ‘형벌로써 위협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적을 ‘문화적 교화에 의해 중국화 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²⁴⁾ 전국 시기의 여러 문헌에는 이적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묘사가 나온다.

모름지기 용·적의 무리는 경솔하여 다른 것은 살피지 못하며, 탐욕스러워 양보할 줄 모르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니, 마치 금수와 같다.²⁵⁾

용·적과 승냥이·이리는 만족할 줄을 모른다.²⁶⁾

용은 금수와 같다.²⁷⁾

23) 中國，戎夷，五方之民，皆有性也，不可推移。東方曰夷，被髮文身，有不火食者矣。南方曰蠻，雕題交趾，有不火食者矣。西方曰戎，被髮衣皮，有粒食者矣。北方曰狄，衣羽毛穴居，有粒食者矣。（陳澧注，《禮記集說》，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6，74쪽.）

24) 홍승현, 앞의 논문, 211쪽 참조.

25) 夫戎·狄，冒沒輕傷，貪而不讓。其血氣不治，若禽獸焉。《國語·周語·中》（上海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所 校點，《國語》，上海古籍出版社，1998，62쪽.）

26) 戎狄豺狼，不可厭也。《左傳·閔公·元年》（楊伯峻 編著，《春秋左傳注》，中華書局，1995，256쪽.）

27) 戎，禽獸也。《左傳·周襄公·4年》（楊伯峻 編著，《春秋左傳注》，中華書局，1995，936쪽.）

여기서 이적은 금수나 승냥이 또는 이리로 묘사되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호리 도시카즈(堀敏一)는 전국시기의 발달한 노예제를 연상하였다. 즉 그는 당시 노예제가 발달함으로 인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관념이 만들어져 夷狄을 사람이 아닌 금수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석하였다.²⁸⁾ 전국시기에 이렇게 형성된 夷狄에 관한 관념은 이후 화이관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였다. 예컨대, 이적을 금수처럼 보았다는 관념은 한대 무제 사후에 ‘羈縻論’으로 발전하게 된다. 기미는 본래 말의 굴레와 소의 고삐를 의미하지만 속어적으로는 牛馬처럼 견제한다는 뜻이 되며, “묶어두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을 정도일 뿐(羈縻不絕而已)”이라는 말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즉 군사적 조치, 정복, 관리 파견 등의 행위가 없다는 것으로서 주변 국가를 중국화하지도 주변화 하지도 않는 원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이적이 금수와 같은 성정을 지녔지만 관계를 단절하거나 멸절시키지 않고 금수처럼 길러서 중국의 담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미론은 왕조 시대의 중국인들이 발견한 최선의 지혜였으며 실제 상황은 항상 변화했지만 관념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천하질서의 상징적 이미지를 형성하였다.²⁹⁾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외부 세력에 대해 방벽과도 같은 장치로 이적의 나라를 설정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이기적인 세계관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세계관은 <견양령> 속에서도 천연덕스럽게 구현된다. 매우 짧은 내용이지만 중국인들의 정서와 심리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동쪽 끝의 먼 나라 신라는 자신들의 우환을 전가시킬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해악적인 존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방법이라고 보았던 고대 중국의 역사적 심상인 것이다.

28) 小倉芳彦, <畜夷の俘>(《中國古代史研究 第2》), 吉川弘文館, 1965, 185-186 쪽. 홍승현, 앞의 논문, 207쪽에서 재인용.

29) 이장우 외 지음, 앞의 책, 40-43쪽 참조.

IV. 新羅의 허상, 그리고 대중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신라로 보내졌다는 여우 유성이 과연 실제로 신라에 터전을 마련하고 신으로 추앙받았는지의 여부이다. 《三國遺事》와 《三國史記》를 비롯한 기타 사료들을 살피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³⁰⁾를 검색해 본 결과 ‘유성’이 등장하는 몇 가지 사료들에서 속에서의 유성은 모두 평범한 인물이었다. 즉 유성이라는 명칭을 가진 여우나 그것과 관련되었을 법한 유사담은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성의 실체로 묘사되었던 ‘늙은 여우’가 등장하는 이야기로는 《삼국유사》에 기재된 몇 조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거타지가 늙은 여우를 잡은 이야기이다. 거타지는 당으로 가는 사신단 가운데 궁수로 뽑혀 동행을 하고 있었다. 중간에 서쪽 바다의 신이 나타나 자신의 가족을 불러내 간과 창자를 빼먹고는 사라진다는 중의 이야기를 하며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 날 중이 다시 나타나 주문을 외우며 늙은 용의 간을 빼먹으려 하자 거타지가 활로 중을 쏘아 맞혔는데, 승려는 곧 늙은 여우로 변하여 땅에 떨어져 죽었다.³¹⁾

거타지 설화는 고려 태조 왕건의 祖父인 作帝建 설화와도 유사하다. 《고려사》에 나오는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제건이 16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으러 상선을 타고 당나라로 떠났는데 운무가 자욱하여 삼일 동안 배가 나가지 못했다. 점을 쳐보았더니 고려인을 떠나게 하라는 결과가 나와 작제건은 배를 떠나 바다 가운데 있는 바위에 홀로 남게 되었고 배는 떠났다. 그러는 동안 老翁이 나타나 자신은 서해용왕이라고 하면서 매일 늙은 여우가 여래와 같은 빛을 발하며 북과 음악소리를 치면서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 그것을 쏘아달라고 하였다. 작제건은 그 말을 수락하고 기다렸는데, 과연 서북쪽에서 부처님

30) <http://db.history.go.kr>

31)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 眞聖女大王·居陀知: 거타지가 늙은 여우를 잡다.

의 모습을 한 자가 나타났다. 작제건이 감히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노옹이 나타나 저것이 늙은 여우라고 하니, 작제건이 그것을 쏘았다. 그 자는 화살에 맞아 떨어졌는데 노옹의 말대로 늙은 여우였다.³²⁾

이 외에도 원광법사를 곁에서 이끌어 중국에 불법을 구하러 갈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는 삼천 년을 넘게 산 검은 여우의 이야기³³⁾, 선덕여왕이 병에 걸리자 밀본법사가 왕의 침전에서 늙은 여우를 잡아내고 여왕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이야기³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몇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신라 문헌 속에서의 여우의 형상이 신으로 격상되어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대상은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여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의해 부정되고,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며 퇴치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³⁵⁾

중국과 신라에서 여우가 이처럼 대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여우가 복과 재물을 몰아다주는 길한 동물로 추앙을 받고 있다. 이때 여우는 입에 곡식 이삭을 물고 있는데 이것을 ‘이나리(稻荷)’라고 부른다.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6만여 개가 넘는 이나리 신사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신사 가운데 총본사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토시 후시미구(伏見區)에 있는 이나리다이샤(稻荷大社)이다. 그런데 바로 이 이나리다이샤 역시 고대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 하

32) 《高麗史·高麗世系·序文》: 작제건이 부친을 찾아가다가 서해용왕을 구해준다.

33) 《三國遺事》卷 第四 義解 第五 圓光西學: 원광이 중국에 유학하여 학문을 완성하다.

34) 《三國遺事》卷 第五 神呪 第六 密本摧邪: 밀본이 선덕왕의 병을 고치다.

35) 물론 그 가운데 원광법사의 이야기에는 삼천 년이 지나도록 오래 산 검은 여우가 이야기 속에서 신으로 불리기는 한다. 그러나 원광법사와 그 신과의 만남은 공개적이지 않은 은밀한 것이었고, 여우는 마치 원광법사 개인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여우의 목소리와 함께 단 한번 하늘 구름에 걸쳐진 엄청난 크기의 팔을 보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모습으로 등장할 뿐이어서 요괴적인 성격이 더 강하며 신격화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타 씨가 세운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³⁶⁾ 이나리 신사가 이 정도의 전국적인 규모와 전 국민적 추앙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면 가히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로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³⁷⁾ 어쨌든 한반도에서 건너간 여우가 일본인들의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설명해도 무방한 것이다. 게다가 <견양령>에서 유성이 무례하게 현령에 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많은 예물과 넉넉한 재산으로 인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일본인들의 추앙을 받는 재물신 이나리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킨다. 그렇다면 <견양령>의 결말 부분에 유성이 내쫓겼다는 곳이 어찌면 신라가 아닌 일본이었던 것은 아닌지의 추론도 가능해진다.

이제 과연 신라가 당나라와 공존하던 그 당시에 <견양령>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문화적으로 열등하고 전래된 것의 실체를 구분 못할 정도의 미개한 수준을 가진 국가였는지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우선 《新·舊唐書·列傳》을 살펴보면 南蠻·西戎·東夷·北狄의 네 夷狄들 가운데 동이에서 신라 조목을 찾아볼 수 있고, 신라는 高麗, 百濟, 倭國, 日本³⁸⁾과 함께 나란히 나열되어 있다. 그렇게 나열된 조목만으로 추론해 본다면 신라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사방의 이적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신라가 다른 이적들과는 구별되는 국가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신라와 당나라와의 적극적인 교류는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당시 신라는 지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적

36) 조관희, 《교토, 천년의 시간을 걷다》, 컬처그라피, 2012, 53-55쪽 참조.

37) 이 경로와 관련되어 참고할 만한 의견도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나리 신사의 여우상이 신라 農業神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신라신의 使者라고 하는 주장이고(홍윤기, <新羅 農業神 신주 모신 이나리(稻荷) 大社>, 《한글한자문화》, 2008, 76쪽), 또 하나는 여우가 箕子를 낳았다는 황해도의 구전설화를 근거로 하여 여우신앙이 한민족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형진, <역사연구가 정형진의 고대문화 새로 읽기 <27> 여우바위의 비밀>: www.KOOKJE.co.kr(국제신문) 2009년 10월 30일자 참조.)

38) 《新唐書》에는 동이에 속하는 다섯 나라로 高麗, 百濟, 新羅, 日本, 流鬼로 구분한 것이 조금 다르다.

으로도 이미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국가였다. 이것은 근대 세계의 가장 오래된 국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신라보다도 언어, 민족, 및 국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긴 연속성을 갖고 있던 단 하나의 동시대 국가는 중국뿐이다.³⁹⁾ 언제 어디서나 중화임을 자처하는 중국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공식적인 문서에서 당은 신라를 유가적 기풍이 강하고 문장과 예악이 찬란한 문명국으로 주변 민족과는 다르게 인식했다. 신라에 대하여 ‘君子之國’으로 호칭한 데서 잘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당 현종이 성덕왕에게 내린 조서에서 신라는 ‘어질고 의로운 나라(仁義之國)’로 일컬어지고, 성덕왕은 ‘문장과 예악이 군자의 풍모를 드러낸다(文章禮樂闡君子之風)’고 했다. 더불어 ‘어찌 다른 지역 문화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豈殊方憬俗)’⁴⁰⁾라고 하였다. 또 《舊唐書》에는 개원 25년 신라 성덕왕이 서거하자 조문과 책봉을 위한 사절단을 파견하며 ‘신라는 군자의 나라로 불리고 문장에 뛰어나니 중국에 비할만하다’⁴¹⁾고 하였다. 이 외에 《三國史記》에는 현종이 신라 사신에게 하사한 ‘명분과 의리의 나라로 일컬어지니 어찌 중국과 그 산과 물이 다르다 하겠는가? 사신은 돌아가 풍속과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은 찾아와 법도를 익혔네. 의관을 갖춘 자는 예절을 받들 줄 알고, 충성과 신의가 있는 자는 유학을 높일 줄 아는구나!’라는 내용의 시가 한 수 전해지기도 한다.⁴²⁾

이와 같은 외교 문서는 황제의 명을 받아 작성한 것이어서 상당히 미화된 문장이기는 해도,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당시 조정의 보편적 정서나 인식과 거리가 있으면 통용되기 어렵다. 신라에 대한 군자지국 대우는 당 현종 시기에 집중되지만 이후의 당 조정 및 민간의 신라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준다.

39) E.O.라이샤워 지음, 조성을 옮김, 《중국 중세사회로의 여행》, 한울, 1991, 268쪽.

40) 《海東釋史》 卷54 <藝文志>

41) 新羅號爲君子之國, 頗知書記, 有類中華.(《舊唐書》 卷199 上 <列傳> 第149 쪽)(劉昫等撰, 《舊唐書》, 中華書局, 1995, 5337쪽.)

42) 《三國史記·新羅本紀》

당이 신라를 군자지국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고대부터 가지고 있던 동이국에 대한 인상 및 선대의 신라와의 접촉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군자국은 고대 전설 속에 등장하는 관념적 국가였고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자가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뗏목을 타고 바다로 가겠다.(子曰: 道不行, 乘桴浮于海.) <論語·公冶長>”고 한 곳은 “군자가 있는 구이(子欲居九夷. <論語·子貢>)”였다. 구이는 동이와 같은 의미이다. 공자에 의해 그 동이는 군자가 있고 군자지도가 행해지는 이상적인 곳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신라국에 대한 인식의 형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⁴³⁾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교류했던 수많은 문인들의 시 속에서도 그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일이 논하지 않겠다.

게다가 ‘왕이 금으로 만들어진 성에 거한다(王之所居曰金城)’⁴⁴⁾라고 사료에 기재된 것을 보면 신라의 경제적 부유함도 의식했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인들이 보여준 신라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은 한편으로는 唐 문화와는 다른 신라 문화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라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羅唐 간의 문화교류에 있어 형평성 면에서 신라는 다양한 통로와 방식으로 중국 문화를 수용했지만 상대적으로 당은 신라 사회의 실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⁴⁵⁾

이제 다시 앞에서 논의했던 <견양령>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역사적인 사료에 근거해본다면 <견양령>의 이야기 속에서처럼 신라가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중국을 위협하는 해악적인 존재를 처리하고,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공간으로 설정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현재까지도 여우가 재

43) 강필임, <唐 文人의 新羅에 대한 認識 樣相 小考>, 《中國文學研究》 제38집, 2009. 34쪽.

44) 《舊唐書》, 5334쪽.

45) 강필임, 앞의 논문, 40쪽.

물의 신으로 떠받들어지는 일본의 경우가 더욱 실정에 부합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어떤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태평광기》에서 그렇게 기록하였다는 사실이다. 민간의 신화 전설, 소설, 그리고 문인들이 창작한 서사작품들까지 망라한 《태평광기》보다 더한 민간 문학의 집대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태평광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편견, 이해관계 등이 배제된 순수한 민간의 생각과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외교적으로 신라가 아무리 중국의 존중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국 대다수 민중의 마음속에 신라는 그저 멀리 떨어진 동방의 나라, 그곳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 버리고 싶은 요괴를 보내어 중국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곳 정도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중화 속에서 쓸모없는 것이라도 그곳에 가면 神으로 격상될 수 있을 정도의 미개하고 분별력도 없는 이적 가운데 하나로 치부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라와 일본 혹은 다른 어느 이적과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단지 중국 밖에 존재하면서 중국을 지켜줄 방패막이이고 울타리인 한 나라 정도로 생각되었던 것이 아닐까?

어떠한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도, 문헌적 근거나 합리적 설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민간에서의 세계관은 그저 단순하게 세계를 화이의 구분 속에 규정지었음을 엿볼 수 있다.

V. 나오는 말

《태평광기》 <견양령>에서 보이는 여우 이야기는 중국의 고전 서사 작품 속에 흔히 등장하는 요괴담이다. 작품 속의 주인공인 늙은 여우 유성은 인간 사회 속에 들어와 살고자 한 여우 요괴담의 전형적인 유형에 속하는 캐릭터이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살았지만 결국 요괴라는 이유로 도사에게 잡히고 만다. 유성은 다시는 돌아

오지 못하도록 부적을 지닌 채 먼 동쪽 끝 신라로 추방당한다. 이 이야기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거부당한 여우 요괴가 신라로 추방되고, 심지어는 신라에서 신으로 승격되어 신라인들의 경건한 추앙을 받게 된다는 결말 부분에 있다.

이 간단하고 짧은 결말에는 많은 역사적 내용이 담겨 있다. 세계를 중화와 이적으로 구분 지었던 고대 중국인들의 관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중화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해악적인 존재 유성은 天狐이다. 그의 요괴성은 용납될 수 없지만 그가 가진 天狐라는 신분은 인간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는 대상임을 의미한다. 그런 존재를 신라에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이관에 입각한 발상이다. 화이론의 이론적 기반인 기미론에 의하면 이적들은 도깨비들로부터 중국을 보호하는 담장으로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거기에는 이적으로서의 신라에 대한 폄하와 멸시의 감정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게 해주는 여러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신라는 다른 이적들과는 구별되는 찬란한 문화와 예악을 갖춘 나라로 중국과 비견되는 하나의 국가였다. 당대의 여러 역사, 정치, 외교적 문서에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태평광기》에서 보았던 신라에 대한 인식은 실증적인 사료와는 다소 간극을 보인다. 재물을 가지고 다니던 늙은 여우 유성은 신라보다도 일본에서 신격화된다. 물론 추론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 전역에 걸쳐 수많은 이나리 신사에서 재물과 복을 비는 하나의 중요한 국민적 신앙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민간 설화 속의 유성이 쫓겨간 곳이 신라가 아닌 바로 일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는 유성을 추방해 보낼 곳이 신라이거나 일본이거나 상관없었으며, 그저 이적의 공간이면 되었다. 신라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중국의 대중들에게는 그저 멀리 동쪽 끝 이적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전설에는 집체심리의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 짐체심리는 당연히 진실한 것일 뿐더러 때로 역사적 진실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마치 저녁노을이 사람들에게 슬프고도 아름다운 느낌을 주고, 길게 자란 대나무가 풍아한 인상을 주는 것이 오랜 세월동안 누적되면서 하나의 진실이 되는 것과 같다. 심지어 그것은 기상학이나 식물학적인 진실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오랜 세월 내내 유전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민족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공동으로 원하고 바라던 것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형’으로 전체 민족의 성격을 만드는 것이다.⁴⁶⁾

어떠한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도, 문헌적 근거나 합리적 설득보다 앞서 있는 것은 바로 《태평광기》에서 그렇게 기록하였다는 사실이다. 《태평광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중국 대중들의 문화적 취향과 심리,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인 마찬가지로 역사적 진실과는 상관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의 인식이라는 거대한 힘을 뒤에 얹은 채 역사 속에서 질긴 생명력으로 공존해 왔다.

< 參考文獻 >

- [清]紀昀 著, 西崖 校譯, 《閱微草堂筆記注譯》, 中國華僑出版社, 1994.
[宋]任昉 等 編, 《太平廣記》, 中華書局, 1994.
[宋]王欽若 等編, 《冊府元龜》, 中華書局, 1989.
陳澧 注, 《禮記集說》, 上海古籍出版社, 1996.
上海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所 校點, 《國語》, 上海古籍出版社, 1998.
楊伯峻 編著, 《春秋左傳注》, 中華書局, 1995.
일연 지음, 신태영 옮김, 《원문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2.

46) 위치우위 지음, 심규호·유소영 옮김, 《위치우위의 중화를 찾아서》, 미래 M&B, 2010, 45쪽 참조.

- 김부식 저, 上古史學會 編著, 《三國史記 新羅本紀》, 古代史, 2009.
- 歐陽脩 等 撰, 《新唐書》, 中華書局, 1995.
- 劉昫 等 撰, 《舊唐書》, 中華書局, 1995.
- 한치윤 저, 정선용 역, 《海東釋史》, 민족문화추진회, 2003.
- 존 스토리 지음, 유명민 옮김,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태학사, 2011.
- 안병우 외 지음, 《중국의 변강인식과 갈등》, 한신대학교출판부, 2007.
- 위치우위 지음, 심규호·유소영 옮김, 《위치우위의 중화를 찾아서》, 미래 M&B, 2010.
- 이중욱, 《민족인가, 국가인가?》, 소나무, 2006.
- 정형진, 《실크로드를 달려온 신라 왕족》, 일빛, 2010.
- 李劍國, 《中國狐文化》, 人民文學出版社, 2002.
- 원작 KBS역사스페셜, 《역사스페셜》 5, 효형출판, 2006.
- 이장우 외 지음, 《중국, 한국과 세계》, 영남대학교출판부, 2003.
- 이춘식, 《중화사상의 이해》, 신서원, 2002.
- 조관희, 《교토, 천년의 시간을 걷다》, 컬처그라퍼, 2012.
- E.O.라이샤워 지음, 조성용 옮김, 《중국 중세사회로의 여행》, 한울, 1991.
- 강필임, <唐 文人の 新羅에 대한 認識 樣相 小考>, 《中國文學研究》 제 38집, 2009.
- 김병곤, <中國 正史 新羅傳에 記錄된 新羅 初期 王系 및 主要 集團의 出自>, 《史學研究》 제91집, 2008.
- 이미자, <《新唐書》 新羅傳 · 《태평광기》 新羅條의 “長人國”기사에 관한 고찰>, 《백산학보》 제65집, 2003.
- 고희가, <한·중 ‘방이’설화 비교 연구>, 《한·중 민간설화 비교연구》, 보고서, 2006.
- 홍윤기, <한·일 고대사의 올바른 인식과 중요성>, 《仙道文化》 제10권, 2011.
- 홍윤기, <新羅 農業神 신주 모신 이나리(稻荷) 大社>, 《한글한자문화》 제103집, 2008.

홍승현, <고대 중국 화이관의 성립과 성격>, 《중국사연구》 제57집, 2008.
<천년의 비밀, 신라 무역항의 수수께끼>, KBS1TV 《역사스페셜》, 2012.
<http://www.cnki.net>
<http://goryeong.grandculture.net>
<http://www.KOOKJE.co.kr>
<http://db.itkc.or.kr>
<http://db.history.go.kr>

<中文提要>

《太平廣記》卷449 〈汧陽令〉中的狐狸妖怪劉成，被流放到東邊遙遠的新羅。後來，他成爲一個神，深受新羅人的敬仰和推崇。

故事結局雖然很簡短，但是卻蘊含著豐富的歷史信息。它如實地反映了古代中國人華夷二元論的思想。能把狐狸發配到新羅的思想，源於華夷觀。據被視爲華夷論基礎的羈縻論觀點，把夷狄當作一堵牆看，他們能起到從鬼怪中保護中國的作用。換句話說，這種思想就隱含著對新羅的貶低和蔑視的情感。

根據許多史料，新羅與中國相媲美的具有與眾不同的燦爛文化和具備禮樂之德的國家。可是在《太平廣記》中，把新羅描述爲與其他夷狄沒什麼多大區別。這與史實有點偏差。身上始終帶有錢財的老狐狸劉成，在日本比新羅更被推崇爲神。這一事實說明在民間傳說中，劉成被流放的地方也許不是新羅，而是日本，而這種假說就具有了符合史實的可能性。盡管如此，對中國人來說，劉成的流放地不管是新羅還是日本，只要是夷狄的空間即可。與史實相異，對當時的中國人而言，新羅只不過是一個在東邊那個遙遠的夷狄而已。

不管史實有多大的出入，比起文獻資料或者合理的解釋更爲重要的還是在《太平廣記》中已有這樣的記載。該書告訴我們當時中國大眾的文學趣向

和心理狀態以及世界觀，同樣，這或許與史實毫無相幹。但是書中所記載的內容憑借大眾的認識這一巨浪的推動下，在曆史的潮流中始終保持頑強的生命力，一直延續至今。

Key Words : 《太平廣記(*Tai Ping Guang Ji*)》, 劉成神(Liu Chengshen), 狐狸精(fox sprite), 新羅(Silla), 華夷(Hwa Yi), 羈縻論(the theory of Ji Mi), 稻荷大社(inari shrine), 大眾文化(popular culture), 歷史認識(historical perspective)